



3rd Week February 2025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Vol. 29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 주간 도내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축제, 우려, 마을, 자전거, 디지털, 차고지
경제·관광	수출, 생산, 농산물, 서비스, 청년
지역·사회	중국인, 관광객, 희생자, 외국인, 버스

※ 분석 기간 : 25.02.20.~25.02.26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11-13 페이지 참고)

정치·행정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들불축제 디지털 전환 논란 - 제주도 지정 축제 선정 및 지원 - 축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우려 - 제주 제2공항 건설 우려 - 제주도 버스 요금 인상 우려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단위 LPG 공급 사업 - 주민자치회 운영 문제 - 마을 공동체 활성화
	자전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자전거 출퇴근 시범사업 -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
	디지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들불축제 디지털 전환 - 제주도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 디지털 관광 콘텐츠 개발
	차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고지 증명제 완화 논의 - 차고지 증명제 시행 문제 - 차고지 증명제 개선 방안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14-17 페이지 참고)

경제·관광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수출 증가, 농수산물과 의약품 강세 - 반도체 수출 감소, 기저효과 영향 - 국가별 수출 실적, 홍콩 최대 수출국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어업 생산량 감소, 고등어·갈치 어획량 감소 - 농산물 생산, 스마트팜 도입으로 효율성 증대 - 양파·마늘 생산, 기후변화 적응 품종 개발
	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농산물 수출 증가, 음료·채소류 두드러짐 - 농산물 유통 개선, 온라인 경매시스템 확대 - 농산물 소비 촉진, 판촉행사 성황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관광 서비스 질 향상, 칭찬 캠페인 진행 - 관광객 편의 증대, 제로페이 도입 - 관광객 유치, 숙박할인권 배포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고용 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선정 - 청년 창업 지원,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 청년 일자리 창출, 신성장산업 지원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17-19 페이지 참고)

지역·사회	중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인 강력범죄 증가 - 중국인 유골함 절도 사건 - 중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단속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범죄 문제 -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단속 - 관광객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
	희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4·3 희생자 유해 발굴 - 어선 침몰 사고로 인한 희생자 발생 -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한 희생자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범죄 증가와 대응 -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치안 강화 - 외국인 대상 불법영업 단속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버스 완전 공영화 추진 - 버스 준공영제의 한계와 문제점 - 버스 공영화를 위한 도민 참여

□ 주간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목차

구분	국가별 정책동향 제목	
중국	중국, 농촌 진흥 위한 종합적 개혁 정책 발표	20
	상하이, 21개 기업 부담 완화 정책 발표로 경제 회복 도모	20
	샤먼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 융합 정책 발표	21
	5개 부처, 소비환경 3개년 행동계획(2025-2027) 공동 발표	21
	중국 재정부, 친환경 국채 발행 위한 프레임워크 발표	22
	중국, 교통 인프라 디지털화 전환 가속화 및 첫 시범사업 배치	22
	광둥성, 산터우·잔장 항만경제구 건설 총체방안 발표	23
	중국 소비자, 국산 화장품 브랜드 신뢰도 더 높게 평가	24
	중국 6개 부처, 정부성 용자담보기구 행위 규범화 조치 발표	24
	중국 증감회, 민영기업 주식·채권 용자 지원 강화 방침 발표	25
	난닝시, 아세안 대상 저공 경제 및 인공지능 산업 고지 조성	25
일본	글리코·큐피, 자율주행 트럭 상품 수송 실험 예정	26
	홋카이도 구치한정, 숙박세 3%로 인상 추진	27
	가나가와 루트, AR 활용 스마트농업 지원 서비스 확대	27
	시즈오카현, 2024년 휴폐업·해산 사례 전년 대비 20% 증가	28
	후지제지협동조합, 폐기물 활용 비료 개발로 처리비용 절감	28
	규슈경제연합회, 2025년 반도체 담당 신설 및 대만 연계 강화	29
	사이타마현 물산관광협회, 대만 여행사와 관광객 유치 협정 체결	30
	우쓰노미야시, 스포츠 인구 증가 및 산업 진흥 계획 발표	30
	가가와현, 현립대학 설치 검토로 청년 유출 방지 추진	31
	오사카부 히가시오사카시, 2027년부터 수학여행 비용 무상화 추진	32
	도요타, 2026년 말 신형 수소 트럭 출시 및 연 5000대 공급 목표	33
	샤프 로보훈, 고령 운전자 운전 지원 기능 개발로 4월 전국 실험	33
	베트남	베트남, GDP 성장률 목표치 8% 이상으로 상향하고 대형 인프라 사업 승인
베트남, 경제성장 가속화 위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 단행		35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3월 원유팜유 수출관세 10% 유지 결정	35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 필리핀에 전력 공급 계획 발표	36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 현지 통화 거래 지침 수립	37
	말레이시아 정부, 농업 분야 기술직업교육훈련 강화 의지 표명	37
필리핀	필리핀,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미국 보복관세 위협에 직면	38
	필리핀, 2024년 외국인 투자 전년 대비 39% 감소 기록	39
	캄보디아, 세계은행과 은행 부문 기술 지원 협력 논의 진행	39
	스페이스X, 캄보디아를 2025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선정	40
싱가포르	싱가포르 총리, 2025년 국가 예산안 발표로 경제 성장 촉진 목표	41

○ 중국

- ✓ 중국 정부가 농촌 진흥 위한 종합적 개혁 정책 발표 정부는 식량 공급 보장, 빈곤 퇴치, 산업 육성, 농촌 건설, 거버넌스 체계 개선의 핵심 과제 중심 프레임워크 구축. 정책은 도농 요소 쌍방향 유동과 토지, 자산, 자금, 인재 등 자원 배치에 초점 맞춘 세부 임무 제시
- ✓ 상하이시가 21개 기업 부담 경감 정책 시행 시 정부는 세금, 고용, 에너지, 용자, 감독 분야 새로운 내용 추가로 연간 1,160억 위안 이상의 경감 효과 달성. 상하이시는 토지 사용세 감면과 해안 무역 인지세 우대 정책 시범 실시 지속 추진
- ✓ 푸젠성 샤먼시가 과학기술·산업 혁신 능력 향상 위한 12개 조치 정책 발표 샤먼시는 과학기술 성과 이전, 과학연구 관리, 기업 육성, 다원화 투입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 지역은 '슈퍼 인큐베이터' 기능 강화와 연구개발 산업 육성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 성과 전환 촉진
-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5개 부처가 소비환경 3개년 행동계획 공동 발표 부처들은 소비 공급 질적 향상, 소비 질서 최적화, 소비자 권익 보호, 소비 환경 공동 관리·선도 등 5대 행동 심도 있는 전개. 계획은 2027년까지 소비 환경 최적화와 경영자 신용 의식 보편적 강화 목표 제시
- ✓ 중국 재정부가 친환경 국제 프레임워크 발표 재정부는 해외 친환경 국제 발행 기초 마련과 국제 자본 시장에 중국 친환경 분야 투자 참고 프레임워크 제공. 발행 자금은 기후 변화 대응, 자연 자원 보호, 오염 방지, 생물 다양성 보호 지원에 전액 사용 보장
- ✓ 중국 교통운수부가 15개 도로·수로 교통 인프라 디지털화 전환 시범 사업 배치 완료 부처는 교통운수 서비스 디지털화 업그레이드, 기초 인프라 안전 방호 능력 향상 추진. 베이징의 자동차·도로·클라우드 협동 응용과 장쑤성의 간선 통로 능동 관리 등 지역별 맞춤형 시범사업 배치
- ✓ 광둥성 정부가 산터우·잔장 항만경제구 건설 총체방안 발표 정부는 주삼각 지역 포함 산업 질서 이전·집중 및 두 부중심 도시 발전 등급 제고, 지역 협조 발전 촉진 목표 제시. 방안은 산업 체인·공급 체인 통합 조형 능력 제고와 세계급 항만 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 ✓ 시장조사기관들이 중국 소비자 국산 화장품 브랜드 신뢰도 강화 확인. 조사에서 소비자 41%가 국산 브랜드 품질이 해외 브랜드와 대등, 23%는 해외 대형 브랜드 능가, 31%는 국산 브랜드만의 독특한 기술이나 원료 보유 인식. 소비자 68%가 향후 1년간 화장품 소비 지출 증가 의향 표명
- ✓ 중국 재정부 등 6개 부처가 정부성 융자담보 발전 관리 방법 공포 부처들은 융자담보기구의 준공공 위치 견지, 시장 실패 보완, 지속가능 경영, 원가 보전 미소 이익 운영 원칙 제시. 규정은 소형·영세기업·삼농 지원 담보 금액이 전체의 80% 이상 유지 요구
-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민영기업 주식·채권 융자 지원 강화 방침 발표 위원회는 신질 생산력 발전 서비스 중점의 정책 강화, 다층적 시장 체계 완비 추진. 현재 A주 상장기업 중 3분의 2가 민영기업이며 과창판·창업판·베이징증권거래소는 약 80%, 신삼판은 약 90%가 민영기업 구성
- ✓ 광시 난닝시가 아세안 대상 저공 경제·인공지능 산업 고지 조성 계획 발표 난닝시는 칭슈구에 광시 최초 저공 경제 산업 집적구 조성과 우수 기업 20여 개 집결. 지역은 저공 경제 응용 시나리오 가속 착지 추진과 '인공지능+' 산업 관련 하이테크 기업 100개 이상 보유

○ 일본

- ✓ 에자키 글리코와 큐피가 자율주행 트럭 상품 수송 공동 실증 실험 시작. 두 기업은 관동과 관서 잇는 고속도로에서 레벨2 수준의 자율주행 실험 진행. 물류 업계의 운전사 고령화·노동 규제 강화에 따른 '2024년 문제' 대응책으로 장기적 레벨4 자율주행 도입도 시야에 둔 전략 모색
- ✓ 홋카이도 구치한정이 호텔·여관 숙박세를 2%에서 3%로 인상 조정 시작. 구치한정은 홋카이도의 숙박세 도입 목표인 2026년 4월에 맞춰 세율 인상 추진. 세수는 홋카이도에 교부하는 도세 상당분과 물가 상승 대응, 관광 관련 신규 시책 등에 충당 예정
- ✓ 가나자와현 농업 기업이 정부 지원으로 AR·AI 활용 스마트농업 지원 사업 확대 기업은 태블릿이나 스마트글래스로 디지털 정보를 현실에 중첩해 농작업 효율화. 서비스는 12종류 기능 이용시 연간 2만 6400엔, 2개 기능 이용시 9900엔 요금 체계와 장비 월 4400엔 대여 시스템 구성

- ✓ 제국데이터뱅크가 시즈오카현 내 기업 휴폐업·해산 사례 증가 보고
조사에서 2024년 휴폐업·해산이 전년 대비 19.8% 증가한 1,941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와 대표자 평균 연령 71.9세로 5년 연속 70세 상회. 건설업이 최다로 281건, 서비스업 192건, 제조업 144건, 소매업 135건 기록
- ✓ 후지제지협동조합이 산학관 연계로 제지 폐기물 활용 비료 개발. 협동조합은 '페이퍼 슬러지' 소각재 활용으로 처리 비용을 5분의 1로 절감하고 자원 순환 촉진. 개발 비료는 '세이초군' 상품명으로 2024년 내 발매 예정이며 현 동부 중심으로 판로 개척 추진
- ✓ 규슈경제연합회 회장이 2025년부터 반도체 전문 담당 인력 배치 발표
회장은 후쿠오카에 기업 지원 거점 설치를 표명한 대만과의 연계 강화 추진. 연합회는 '사이언스 파크' 각지 설치 구상 실현을 위한 지자체 대상 활동 전개와 “현재 추진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반도체에 주력” 강조
- ✓ 사이타마현 물산관광협회가 대만 여행사 5개사와 인바운드 유치 연계 협정 체결. 협회는 매력적 투어 개발과 프로모션 협력을 통한 관광객 유치 강화 및 관광 소비액 증가 도모. 현 내 사업자가 아웃도어 체험이나 견학 투어 등 여행 상품 고안, 협회가 여행사에 제공하는 구조 구축
- ✓ 우쓰노미야시가 스포츠 추진 계획 제2차 책정 발표. 시는 20세 이상 시민의 주 1회 이상 스포츠 활동 실시율 개선 방안과 평생 스포츠 기회 확보 필요성 명시. 사토 시장은 “스포츠를 '보는' 것에서 실제로 '하는' 것으로 연결하고 싶다”며 시민 참여 중요성 강조
- ✓ 가가와현 지사가 현립대학 설치·확충 검토 방침 발표. 지사는 낮은 현내 대학 진학률(17%)로 인한 청년층 현외 유출 문제 해결과 지역 인재 양성·정착 촉진 목표. 현은 유식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를 통한 대학 신설 또는 현립보건의료대학 확충 여부 검토 계획 수립
- ✓ 오사카부 히가시오사카시가 육아 지원 공정표 발표. 시는 보육료, 급식비, 수학여행비 무상화, 학원비 일부 지원 정책으로 연간 23억 엔 규모 재정 투입 계획. 노다 시장은 “아이들 우선주의를 명확한 이념으로 가지고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리고 싶다”고 발언

- ✓ 도요타자동차가 2026년 말 신형 수소연료전지 트럭 출시 계획 발표. 회사는 일본 시장 연간 5000대 공급 목표와 2030년 세계 시장 10만 대 공급 전략 제시. 새 시스템은 현행품 대비 내구성 2배, 연비 성능 20% 향상과 차량 크기에 따라 중핵 부품 '셀' 매수 조절 가능한 특징 보유
- ✓ 샤프와 스미토모상사가 소형 로봇 활용 고령 운전자 지원 시스템 개발. 두 기업은 로보혼 실증 실험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2026년도 서비스 상용화 목표 설정. 시스템은 로보혼과 스마트폰을 조수석에 설치하고 GPS와 가속도 센서로 실시간 운전 상황 파악 후 조언 발화

○ 베트남

- ✓ 베트남 국회가 2025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8% 이상으로 상향 조정 승인. 국회는 최초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국 연결 철도 건설 등 대형 인프라 사업도 함께 승인. 북부 주요 항구와 중국 연결 신규 철도 사업은 83억 달러 규모로 중국 정부 차관 일부 투입 예정
- ✓ 베트남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안 승인. 국회는 부처·기관 규모 20% 축소와 약 10만 명 공무원 영향 예상되는 수십 년 만의 최대 개편 단행. 팜 밉 쩡 총리가 제시한 2024년 8% 경제성장률 달성과 향후 두 자릿수 성장 기반 마련 목표의 일환으로 추진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 정부가 3월 원유팜유 수출관세 10% 유지 결정. 정부는 가격이 톤당 4,817링깃에서 4,390링깃으로 하락했음에도 최고세율 적용 구간에 속해 세율 유지. 원유팜유 수출관세는 톤당 2,250링깃 구간에 대해 3%로 시작하여 가격 상승에 따라 세율 상승하는 구조 유지
- ✓ 말레이시아 총리가 사라왁 주에 2026년부터 필리핀 전력 공급 요청. 총리는 미리·빈톨루 발전소의 총 2,000MW 전력을 사바 주 경유해 남부 필리핀에 공급하는 계획 제시. 사라왁 주총리는 잉여 전력 공급으로 아세안 에너지 그리드 기여와 에너지 생산용 합성가스 생산 확대 추진

- ✓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 중앙은행이 현지 통화 거래 체계 운영 지침 채택. 세 국가는 상품·서비스 직접·포트폴리오 투자를 포함한 포괄적 체계 구축과 미 달러 의존도 감소 목표 지침은 기존 양자 간 지침을 통합하여 참여 금융기관과 이용자를 위한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강화 목적
- ✓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농업 분야 기술직업교육훈련 강화 표명. 부총리는 농업 TVET 취업률(80%)이 전국 평균(94.5%)보다 낮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초점 강화 계획. 정부는 “TVET가 대안으로 여겨지지 않고 학생들의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농업 인력 양성의 중요성 역설

○ 필리핀

- ✓ 일본 싱크탱크가 필리핀의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미국 보복관세 위협 경고 기관은 수입 정책, 위생 조치, 기술적 무역 장벽 등 완화 필요성 지적. 필리핀의 구체적 비관세장벽으로 중고 자동차 수입 금지, 동물 사료 원료 사용 보고서 촉구, 엄격한 수입 허가 등 사례 제시
- ✓ 필리핀 정부가 2024년 외국인 투자액 39% 감소 현황 발표 당국은 투자액이 5,436억 페소로 전년 8,890억 페소 대비 대폭 감소하고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국 투자가 급감 확인. 산업별로 전기·가스·증기·공조 공급 부문 투자가 7,323억 페소에서 3,415억 페소로 53.4% 감소

○ 캄보디아

- ✓ 세계은행이 캄보디아 중앙은행 기술 지원 방안 검토 진행. 양측은 바콩 결제 시스템 등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통한 은행 부문 안정성 및 신뢰 유지 현황 평가. 캄보디아 중앙은행 총재는 바콩 시스템이 중소기업 신용평가를 위한 현금흐름 평가 도구로도 활용되는 혁신적 기능 설명
- ✓ 스페이스X-스타링크가 캄보디아를 2025년 우선 투자 대상국으로 선정. 회사는 캄보디아와의 관계 강화 목표 설정을 통한 디지털 인프라 및 인터넷 연결성 향상 전망. 방문단은 정부 수반 및 관련 부처 고위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통한 기술 현대화를 위한 투자 환경 학습 목적 제시

○ 싱가포르

- ✓ 싱가포르 총리가 2025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총리는 물가 압박 해소, 성장 촉진, 근로자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 포용적 사회 구현을 주요 목표로 설정. 원자력 발전 도입 가능성 검토와 청정에너지 확보를 위한 퓨처 에너지 펀드에 50억 싱가포르달러 추가 투자 계획 발표.

Contents

- ☑ 언론분석: Word Cloud
- ☑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1

언론분석: Word Cloud

- 2025년 2월 20일~2월 26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967건임
 - 정치·행정 분야 443건, 경제·관광 186건, 지역·사회 338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축제, 우려, 마을, 자전거, 디지털, 차고지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들불축제 디지털 전환 논란<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들불축제가 디지털 불빛 쇼로 전환되면서 축제의 정체성 상실에 대한 우려. 달집 태우기와 햇불 대행진 등 전통 행사가 LED 조명으로 대체되며 도민들의 혼란과 비판· 축제 준비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으로 인한 신뢰성 하락. 2년간의 준비와 4억 원의 용역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축제의 본질 훼손 논란
-------	----	---

정치·행정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지정 축제 선정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2025년 지정 축제로 탐라국입춘굿, 우도소리축제 등 10개 축제 선정. 광역부문과 지역부문으로 나누어 최우수, 우수, 유망축제로 분류 및 재정 지원 ·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지원. 제주유채꽃축제, 삼양 검은모래축제 등 대상으로 핵심역량 진단 및 맞춤형 로드맵 수립 - 축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축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산업 발전. 축제 유치로 인한 관광객 유입 증가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 축제를 통한 지역 문화 홍보 및 관광 자원 활용. 제주의 독특한 문화와 자연을 활용한 축제로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 논의. 동·서제주시로 나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및 재정 교부금 차이 발생 우려 ·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선거구 획정 문제. 교육의원 일몰제와 기초의회 부활 등 복잡한 변수로 인한 선거구 조정의 어려움 - 제주 제2공항 건설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상생발전 문제.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 숨골 보전 등 환경적 쟁점에 대한 우려 · 제2공항 건설로 인한 지역 주민의 생활 변화 및 경제적 영향. 공항 건설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부족 및 갈등 가능성 - 제주도 버스 요금 인상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 부담 증가 우려. 10년 만의 요금 인상으로 인한 생활비 상승 및 경제적 부담 · 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감소 가능성. 특히 노인 및 어린이 무료 이용 확대에 따른 버스업계의 재정 악화 우려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단위 LPG 공급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추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 · 고산2리와 전원마을 등 2개 마을 선정. 국비 포함 총 8억 원 투입해 LPG 공급 시설 및 배관망 구축 - 주민자치회 운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작부터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의 갈등. 경선 결과에 따른 위원 사퇴 및 운영 문제 발생 · 주민자치회의 예산 집행 및 참여율 저하 문제. 위원회 구성 단계에서의 갈등으로 인한 향후 운영의 어려움 예상 - 마을 공동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주민 참여형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의 결속력 강화 · 마을 단위의 환경 정비 및 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정치·행정	자전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자전거 출퇴근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공직자 대상으로 전기자전거 출퇴근 시범사업 실시. 친환경 교통 수단 도입을 통한 탄소 배출 감소 목표 · 공유 전기자전거 '지구'와 협약 체결. 도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서비스 개선 -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연삼로와 연복로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검토.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교통 체증 완화 및 자전거 이용 편의 증대 ·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 진행. 도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청소년 대상 자전거 교육 강화. 안전한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건강 증진 및 환경 보호. 도민들의 자전거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디지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들불축제 디지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들불축제가 디지털 불빛 쇼로 전환되며 전통 행사의 현대화 시도. LED 조명을 활용한 새로운 축제 형태 도입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축제의 정체성 논란. 전통 문화와 현대 기술의 조화를 위한 논의 필요성 - 제주도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시범 운영.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성 증대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 제로페이 도입을 통한 관광지 이용 편의성 증대. 도내 주요 관광지 및 공영 시설에서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 확대 - 디지털 관광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디지털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 VR, AR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체험 제공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광 홍보 강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주 관광의 글로벌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차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고지 증명제 완화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차고지 증명제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배기량 1600cc 미만 중형차까지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 검토 · 차고지 증명제 완화로 인한 도민 편의 증대. 특히 중산층 차량의 완화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 - 차고지 증명제 시행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고지 증명제 시행 과정에서의 민원 증가. 차고지 확보 비용 및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인한 도민 불만 · 차고지 증명제의 효과성 논란. 교통혼잡 및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와 실제 효과 간의 괴리 - 차고지 증명제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차고지 증명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정책 강화 · 차고지 증명제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 도민들의 생활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수출, 생산, 농산물, 서비스, 청년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수출 증가, 농수산물과 의약품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수출 증가율 전국 최고: 2025년 1월 제주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0% 증가한 1725만 달러 기록. 전국 평균 수출 증가율(10.2%)을 크게 웃도는 성과 · 농수산물 수출 증가: 농림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696만 달러. 특히 음료(63.8%)와 채소류(32.3%) 수출이 두드러짐 · 의약품 수출 급증: 중국과 베트남 중심으로 의약품 수출이 200.8% 증가한 29만 달러 기록. 선박 수출도 필리핀으로 62만 달러 신규 수출 - 반도체 수출 감소, 기저효과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수출 감소: 제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전년 동월 대비 3.1% 감소한 740만 달러 기록. 지난해 1월 반도체 수출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 · 농산물 수출 증가: 농산물 수출은 345만 달러로 전년 대비 5.6% 증가. 음료와 채소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제주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 수산물 수출 증가: 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336만 달러. 넉치 수출은 14.2% 증가하며 미국, 베트남 등 주요 시장에서 견조한 수요 확인 - 국가별 수출 실적, 홍콩 최대 수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 최대 수출 지역: 홍콩으로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8.5% 증가한 723만 달러 기록. 반도체, 가축육류, 건조수산물 수출 증가가 주요 원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수출 증가: 일본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26.9% 증가한 326만 달러. 음료와 채소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넉치 수출 감소를 상쇄 · 베트남 수출 감소: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53.8% 감소한 106만 달러. 반도체 수출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어업 생산량 감소, 고등어·갈치 어획량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 생산량 감소: 2024년 제주 어업 생산량은 7만3809t으로 전년 대비 8.4% 감소. 고등어와 갈치 어획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 · 고등어 어획량 감소: 고등어 생산량은 전년 대비 17.4% 감소한 13만 4604t 기록. 고수온 영향으로 어군 형성 부진이 주요 원인 · 갈치 어획량 감소: 갈치 생산량은 전년 대비 26.6% 감소한 4만4506t 기록.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생산량을 기록하며 어민들 어려움 가중 - 농산물 생산, 스마트팜 도입으로 효율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팜 도입: 제주도는 20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 쌈채소와 딸기 재배를 위한 복합온실 형태의 스마트팜 조성 예정 · 쌈채소 재배 기술 개발: 유럽 샐러드 상추 6품종과 쌈채소용 고추냉이 2 품종 대상으로 재배 기술 개발. 제주 돼지고기와와의 공함을 고려한 작목 선발 · 딸기 재배 기술 개발: 설향 등 6품종 딸기에 대한 최적의 급액농도 등 재배 기술 개발. 고온기와 겨울철 재배 효율 극대화를 위한 연중 작부체계 구축 - 양파·마늘 생산, 기후변화 적응 품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파 품종 개발: 제주도와 농촌진흥청은 2029년까지 양파 우량계통 선발 시험 진행. 수입 종자 대체를 위한 조생양파 품종 개발에 주력 · 마늘 품종 개발: 남도 품종 중심의 마늘 재배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적합한 품종 개발. 2차 생장(벌마늘) 발생 감소를 목표로 한 연구 진행 · 농가 부담 감소: 불안정한 종자 가격으로 인한 농가 종자비 부담 증가 문제 해결. 국내산 품종 보급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화 기대
경제·관광	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농산물 수출 증가, 음료·채소류 두드러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수출 증가: 2025년 1월 제주 농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345만 달러 기록. 음료와 채소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음료 수출 증가: 음료 수출은 전년 대비 63.8% 증가한 177만 달러 기록. 제주 특산품인 감귤을 활용한 음료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 성과 · 채소류 수출 증가: 채소류 수출은 전년 대비 32.3% 증가한 83만 달러 기록. 제주산 채소의 품질과 신선도가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는 결과 - 농산물 유통 개선, 온라인 경매시스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경매시스템 확대: 제주시농협 농산물공판장에서 온라인 경매시스템 도입. 농산물 유통 효율성 증대와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 유통비 지원 확대: 제주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확대 요청. 농가와 중도매인 간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한 유통 구조 개선 · 상품권 환전 시스템 구축: 중도매인들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통한 상품권 환전 시스템 구축.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의 결제 편의성 증대 - 농산물 소비 촉진, 판촉행사 성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촉행사 성황: 제주산 농산물 판촉행사 '제주 농산물 제주에서 왔수다 페스티벌'

		<p>성황리 진행. 겨울 채소와 감귤 할인 판매로 소비자 호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겨울 채소 판매 증가: 2024년산 겨울 채소 총 3만t 중 2만8500t 판매 달성. 미니양배추, 세척당근, 무 등 제주산 채소의 우수성 홍보 만감류 판매 증가: 만감류 300t 판매 예상.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등 제주 특산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할인행사 진행
	<p>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관광 서비스 질 향상, 칭찬 캠페인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칭찬 캠페인 진행: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관광 칭찬해요' 캠페인 진행. 관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긍정 이미지 구축 노력 칭찬사례 수집: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8건의 칭찬사례 수집. 친절한 상담사와 가이드, 관광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 피드백 우수사례 선발: 매월 5건의 우수 칭찬사례 선발 후 연말 '왕중왕 칭찬사례' 발표.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동기부여와 서비스 질 향상 기대 - 관광객 편의 증대, 제로페이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로페이 도입: 제주도립미술관과 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제로페이 시범 운영. 내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성 증대를 위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결제 편의성 증대: 쿼일 코드를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국내외 33개 간편결제 앱과 연계하여 결제 편의성 제공 공영 관광지 확대: 3월 말까지 도내 유료 공영 관광지와 직영 시설에 제로페이 전면 도입 예정. 관광객의 편의성 증대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 관광객 유치, 숙박할인권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할인권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진행. 2025년 3월 28일부터 30만장의 숙박할인권을 비수도권 지역에 배포 관광객 유치 효과: 숙박할인권을 통해 국내 관광 수요를 제주로 유치. 호텔, 리조트, 펜션 등 다양한 숙박시설에서 할인 혜택 제공 소비 촉진: 숙박할인권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제주 관광업계의 어려움 해소와 관광객 증가를 통한 경제 효과 창출
	<p>청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고용 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성장프로젝트 선정: 제주도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14억400만원 확보 후 지방비 3억5000만원 추가 투입 청년 친화적 인프라 구축: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카페 조성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청년들의 사회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구직 지원 강화: 진로상담소를 통한 청년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경력 재설계, 멘토링, 취업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창업 지원,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25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참여자 모집. 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28명 선발 예정 창업 자금 지원: 초기 단계에서 시제품 제작과 사업화 자금 지원. 최대 40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통한 창업 성공률 제고 창업 생태계 조성: 창업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사업설명회 진행.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발생 후 중국인은 해외로 도주했으며, 경찰은 인터폴 수배를 요청할 예정. 이 사건은 중국인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 - 중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단속 · 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등록 여행업 및 불법 유상운송이 성행.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무등록 여행업자와 불법 운송업자 적발 · 불법영업자들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가의 금품을 요구하며 관광질서를 문란하게 만들. 경찰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관광객 보호를 강화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범죄 문제 · 코로나19 이후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며,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범죄가 두드러짐. 경찰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치안 강화 필요성을 강조 · 관광객 증가로 인한 범죄 증가는 제주의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 경찰은 관광객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주요 관광지 순찰 강화 -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단속 · 제주에서 무등록 여행업자들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진행.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무등록 여행업자와 불법 운송업자 적발 · 불법영업자들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가의 금품을 요구하며 관광질서를 문란하게 만들. 경찰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관광객 보호를 강화 - 관광객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 · 제주소방당국은 최근 잇따른 선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광객 대상 안전교육 강화. 구명조끼 착용법, 선박탈출 요령 등 실질적인 교육 진행 · 관광객 안전을 위해 제주안전체험관에서 다양한 안전사고 대비 프로그램 운영. 특히 항공기 사고 시뮬레이션 등 관광객 호응이 높은 프로그램 제공
	희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4·3 희생자 유해 발굴 ·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 최근 제주공항 부지에서 발굴된 유해가 희생자 가족에게 인계되며 역사적 의미 · 유해 발굴 작업은 제주 4·3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정. 도민과 유가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어선 침몰 사고로 인한 희생자 발생 ·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로 승선원 중 5명 사망, 9명 실종. 사고 원인은 과도한 어획량으로 인한 복원력 상실로 추정 · 사고 발생 후 구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인명피해 발생. 해경은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구조 작업의 문제점을 파악 -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한 희생자 · 제주 한림읍 수산물 냉동식품 작업장에서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 발생. 70대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후 사망 · 사고 원인은 가스 배관 누출로 추정되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 작업장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범죄 증가와 대응 · 최근 제주에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며 도민 불안감이 고조. 특히 중국인 범죄가 전체 외국인 범죄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강력범죄 비중이 높은 상황 · 경찰은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입국 시 범죄 예방 홍보 강화 및 주요

		<p>관광지 순찰 강화를 계획. 다문화가족 자율방범대 구성도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치안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이후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며,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범죄가 두드러짐. 경찰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치안 강화 필요성을 강조 · 관광객 증가로 인한 범죄 증가는 제주의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 경찰은 관광객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주요 관광지 순찰 강화 - 외국인 대상 불법영업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에서 무등록 여행업자들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진행.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무등록 여행업자와 불법 운송업자 적발 · 불법영업자들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가의 금품을 요구하며 관광질서를 문란하게 만듦. 경찰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관광객 보호를 강화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버스 완전 공영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가 버스 완전 공영화를 촉구하며 숙의형 공론 과정 제안. 준공영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공성이 강화된 대중교통 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민간버스 사업자 지원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는 개선되지 않음. 완전 공영화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기대 - 버스 준공영제의 한계와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민간버스 사업자 지원 예산이 증가했지만, 도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는 개선되지 않음. 준공영제의 한계가 드러남 · 버스 준공영제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미미하며, 도민들의 불만이 높음. 완전 공영화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필요성이 대두 - 버스 공영화를 위한 도민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도민들이 버스 공영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 마련을 촉구. 도민 의견을 반영한 대중교통 정책 수립 필요성 강조 · 버스 공영화 추진을 위해 도민 982명이 서명한 버스 완전 공영제 숙의형 정책개발 서명부를 제주도에 제출. 도민 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의 중요성 강조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 중국, 농촌 진흥 위한 종합적 개혁 정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정부의 2025년 중앙 1호 문건 발표를 통한 농촌 개혁 심화 및 전면적 농촌 진흥을 위한 세부 정책 제시. 식량 공급 보장, 빈곤 퇴치, 현금 부민 산업 육성, 농촌 건설, 농촌 거버넌스 체계 개선 등 다섯 가지 핵심 과제 중심의 총체적 프레임워크 구축 - 문건 내 도농 요소 쌍방향 유동을 중심으로 한 개혁 조치들의 중요성 강조. 토지, 자산, 자금, 인재 등 요소 자원 배치에 초점을 맞춘 여섯 가지 세부 임무 제시를 통한 전면적 농촌 진흥의 핵심 수단 마련.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들의 이러한 개혁 조치의 농촌 진흥 핵심 역할에 대한 지적 - 농민 수입 부분의 고령 농민공 취업 지원 강화, 농산물 가격 침체 대응을 위한 무역과 생산 조정 메커니즘 완비, 농산물 시장 정보 발표 강화, 형식주의 정리와 기층 부담 경감 등 문제 해결 지향적 새로운 요구사항 제시. 중국 농업의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 촉진 방향 명시 <p>○ 상하이, 21개 기업 부담 완화 정책 발표로 경제 회복 도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이시의 기업 요구 대응 및 경영 신뢰 회복을 위한 21개 기업 부담 경감 정책 시행 발표. 2024년 20개 조치를 바탕으로 세금·비용, 고용 비용, 에너지 비용, 용자 비용, 감독 분야에서의 새로운 내용 추가. 이전 정책 시행으로 연간 1,160억 위안 이상의 기업 부담 경감 효과 달성 - 도시 토지 사용세 감면 정책 완비와 해안 무역 인지세 우대 정책 시범 실시 지속 추진. 여성 직원의 출산 휴가 및 출산 휴가 기간 기업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해 50% 비율의 보조금 신청 가능한 새로운 사회보험 보조금 정책 도입. 기업의 핵심 관심사인 세금·비용 부담 경감 방안 마련 - 비전력망 직공급 전력 가격 정책 완비, 공업단지 전력 가격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인상 폭 상한선 인하, 최종 사용자 전기요금 인하 등의 에너지 비용 절감책 시행. 대출 갹신 대상을 모든 소형 및 영세 기업으로 확대하고 중형 기업 유동자금 대출 정책 혜택 기간 연장 등 용자 비용 절감을 위한 새로운 조치 도입</p> <p>○ 샤먼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 융합 정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젠성 샤먼시의 과학기술 혁신 능력과 산업 혁신 능력 향상을 위한 12개 조치 정책 발표.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전환, 과학연구 사업 단위 관리, 과학기술 기업 육성, 다원화된 과학기술 투입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 2023년 이후 지속적인 과학기술 혁신 선도 프로젝트 추진의 새로운 단계 진입 - 샤먼과학성의 '슈퍼 인큐베이터' 기능 강화, 연구개발 산업 육성, 혁신 비행지 배치 최적화를 통한 대학 및 연구기관 성과 전환 촉진. 고능급 혁신 플랫폼 건설 강화와 국가급 혁신 플랫폼 구축 지원. 과학기술 교류 협력 플랫폼 확대와 국가급 국제 과학기술 협력 기지 건설 계획 수립 - 과학기술 계획 체계 최적화, '쭈쑹 혁신 연구원' 설립,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의 과학기술 성과 전환 지원 강화. 첨단 과학기술 서비스업 육성과 과학기술 혁신 창업 종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지역 과학기술 금융 지원 체계 구축과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 응용 가속화 방안 마련 <p>○ 5개 부처, 소비환경 3개년 행동계획(2025-2027) 공동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5개 부처의 소비환경 3개년 행동계획(2025-2027) 공동 발표. 소비 공급 질적 향상, 소비 질서 최적화, 소비자 권익 보호 효율 제고, 소비 환경 공동 관리, 소비 환경 선도 등 5대 행동의 심도 있는 전개를 통한 2027년까지 소비 환경 최적화 목표 제시 - 공급 품질 저하, 시장 질서 혼란, 권리 보호 효능 부족 등 문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 추진. 상품·서비스 품질 대폭 향상, 소비 리스크 현저한 감소, 소비 분쟁 근원적 해결 효과 증대, 경영자 신용 의식 보편적 강화, 소비 편의성·쾌적성·만족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도 대폭 제고를 통한 전국 소비 환경의 뚜렷한 개선 목표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 소비 품질 제고, 더 많은 소비 시나리오 창출, 시장 거래 환경 정비, 소비 분쟁 행정 조정 강화 등 19개 구체적 조치 제시. 국제화 표준 도입, 내외무 제품 동일 수준 품질 추진, 전통 브랜드 혁신 발전, 소비 업그
	<p>○ 중국 재정부, 친환경 국채 발행 위한 프레임워크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재정부의 '중화인민공화국 친환경 국채 프레임워크' 대외 발표. 국내외 최적 표준을 참고하여 해외에서 친환경 국채 발행을 위한 기초 마련. 향후 이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중국 친환경 국채 발행 예정으로 국제 시장의 고품질 친환경 채권 종류 다양화, 국내 친환경 저탄소 발전 지원 국제 자금 유치, 친환경 금융 발전 촉진 목표 설정 - 프레임워크를 통해 발행되는 친환경 국채 자금의 중앙 재정 예산 내 적격 친환경 지출에 전액 사용 보장. 기후 변화 완화, 기후 변화 적응, 자연 자원 보호, 오염 방지, 생물 다양성 보호 등의 환경 목표 달성 지원에 초점. 국제 자본 시장에 중국 친환경 분야 투자를 위한 효과적 참고 프레임워크 제공 - 업계 인사들의 중국 정부가 친환경 금융과 지속 가능한 발전 영역에서 이정표적 의미의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 프레임워크 발표를 통한 아름다운 중국 건설 지속 추진 의지 표명. 친환경 국채 발행을 통한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친환경 금융 발전 촉진 기반 구축
	<p>○ 중국, 교통 인프라 디지털화 전환 가속화 및 첫 시범사업 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교통운수부의 첫 15개 도로·수로 교통 인프라 디지털화 전환 및 업그레이드 교통강국 전문 시범사업 배치 완료. 교통운수부 종합계획국의 시범사업 명단 공개와 함께 시범사업의 시범·유도 역할 충분한 발휘, 시범 성과 보급·응용 강화, 공공 서비스 능력·업계 관리 효능·산업 협동 혁신 수준 향상 효과적 제고 강조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운수 서비스 디지털화 보편적 업그레이드, 기초 인프라 안전 방호 능력 향상, 교통운수 데이터 요소 개발 이용, 산업 협동 혁신 발전 등 네 가지 중점 방향 집중 시범사업 추진. 베이징의 자동차·도로·클라우드 협동 응용 및 '하나의 네트워크' 출행 서비스, 장쑤성의 간선 통로 능동 관리 및 도로 망 운행 감시·예경 시스템 등 각 지역별 맞춤형 시범사업 배치 - 디지털화 전환 업그레이드 추진을 통한 교통 인프라 장기 공급 품질·효율 향상 기대. 전문가들의 규모 효과 발휘 부족, 산업 융합 발전 불충분, 협동 보장 체계 미형성 등 문제 지적과 함께 정책 유도·부서 협동 강화를 통한 교통 인프라 디지털화 전환 업그레이드 추진 협력 형성 필요성 제기
	<p>○ 광둥성, 산터우·잔장 항만경제구 건설 총체방안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둥성 정부의 '산터우 항만경제구 건설 총체방안'과 '잔장 항만경제구 건설 총체방안' 발표. 주삼각 지역 포함 국내외 산업 질서 이전·집중을 통한 산터우·잔장 두 성역 부중심 도시 발전 등급 제고, 광둥성 전체 지역 협조 발전 촉진 목표 제시. 산터우 항만경제구 총 계획면적 104.93km², 잔장 항만경제구 총 계획면적 148.81km² 규모 - 총체방안의 '하나의 주선', '세 가지 기능 포지셔닝', '다섯 가지 중점 임무' 및 일련의 지원 정책 핵심 구성. 광둥성 제조업 독특한 우위에 의존한 산업 체인·공급 체인 통합 조형 능력 제고, 세계급 항만 산업 클러스터와 항만 경제구 조성, 2030년까지 산터우·잔장 항만경제구의 중요 산업 체인 단계와 기업 집결을 통한 국내외 산업 이전 중요 목표 지역 조성 목표 설정 - 산터우 항만경제구는 산터우 경제특구 고품질 발전의 중요 엔진, 동남 연해 지역성 종합 무역 항운 센터, 산업 개방 협력 관문 창구 등 세 가지 기능 포지셔닝 제시. 잔장 항만경제구는 국가 전략 연동 발전의 중요 지점, 아세안 대면 산업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협력의 교두보, 내외 순환 연결 산업 발전의 새로운 플랫폼 등 세 가지 기능 포지셔닝 명시</p> <p>○ 중국 소비자, 국산 화장품 브랜드 신뢰도 더 높게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조사기관 닐슨IQ와 바이트댄스 산하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 플랫폼이 발표한 '2024 메이크업 산업 백서'에서 중국 소비자들의 '미를 추구하는' 지출 의향 상승 및 국산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강화 현상 확인. 18~60세 중국 화장품 소비자 1,043명 대상 조사에서 여성 비율 90% 차지 - 소비자 68%가 향후 1년간 화장품 소비 지출 증가 의향 표명. 민족 정체성 강화가 화장품과 중국식 미학의 혁신적 융합 촉진 및 화장품 시장에 새로운 활력 주입. 소비자 41%가 국산 화장품 브랜드 품질이 해외 브랜드와 대등하다고 판단, 23%는 품질 측면에서 해외 대형 브랜드 능가, 31%는 국산 브랜드만의 독특한 기술이나 원료 보유 인식 - 국조(國潮) 요소의 인기 지속 상승. 화장품 브랜드들이 중국 전통 예술, 역사와 현대 디자인 결합을 통한 문화적 매력이 넘치는 제품 창조로 소비자 유인 및 제품에 정서적 가치 부여 성공. 국제·국산 화장품 브랜드의 콘텐츠 전자상거래 성장 기회 포착 경쟁 심화. 콘텐츠 전자상거래 판매액 상위 20개 브랜드 중 중국 브랜드 15개로 2024년 1~11월 소매액 전년 대비 48% 증가 <p>○ 중국 6개 부처, 정부성 융자담보기구 행위 규범화 조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재정부 등 6개 부처의 '정부성 융자담보 발전 관리 방법' 공포 및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정부성 융자담보 기구는 법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 및 그 수권기구·국유기업이 출자하고 실제 통제하며, 정책성 융자담보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융자담보·재담보기구로 정의 - 정부성 융자담보기구의 준공공 위치 견지, 시장 실패 보완, 지속가능 경영 전제하의 원가 보전 미소 이익 운영, 영리 목적 지양 원칙 준수 요구. 일자리 창출 능력이 강하고 노동집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약형인 소형·영세기업과 삼농 등 경영 주체 적극 지원, 중점적으로 단일 담보 금액 1,000만 위안 이하 소형·영세기업과 삼농 주체 등에 용자담보 서비스 제공 방향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영세기업·삼농 지원 담보 금액이 전체 담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칙상 80% 이상, 그중 단일 담보 금액 500만 위안 이하 비율 원칙상 50% 이상 유지 요구. 정부성 용자담보기구의 주업 이탈 및 업무 범위 무분별 확대 금지, 정부채권 발행 담보 금지, 지방정부 용자 플랫폼 신용 강화 제공 금지, 비용자담보기구 주식 투자 금지 등 규정 마련 <p>○ 중국 증감회, 민영기업 주식·채권 용자 지원 강화 방침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우칭 주석 주재 당위원회 회의 개최와 민영기업 주식·채권 용자 지원 강화 방침 발표. 자본시장이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 플랫폼으로서 현재 A주 상장기업 중 3분의 2가 민영기업, 과창판·창업판·베이징증권거래소는 약 80%, 신삼판은 약 90%가 민영기업, 민영기업 채용자·인수합병 건수가 전체 시장의 70% 차지하는 상황 강조 - 증감회 시스템의 민영경제가 자본시장 고품질 발전의 중요 기초라는 인식 심화, 민영경제 발전 촉진과 자본시장 업무 연계, “두 개의 흔들림 없는 견지” 원칙 고수, 자본시장 플랫폼 역할 발휘 강화를 통한 민영기업의 우수한 성장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지원 제공 필요성 제기 - 신질 생산력 발전 서비스를 중점으로 한 ‘과창판 8조’, ‘인수합병 6조’ 등 정책 실시 강화, 다층적 시장 체계 완비, 인내자본 육성 가속화, 자본시장을 통한 더 많은 우수 민영기업 발전 지원 추진.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민영 상장기업 체불 문제 해결, 부동산 기업 용자 지원과 채권 불이행 리스크 방지, 민영 상장기업 퇴출 리스크 안정적 처리, 시장화 회생 메커니즘 완비 추진 <p>○ 난닝시, 아세안 대상 저공 경제 및 인공지능 산업 고지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시 난닝시의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 심층 융합 추진을 통한 아세안 대상 저공 경제·인공지능 산업 고지 전력 조성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계획 발표. 난닝시 정부의 저공 경제 고품질 발전 업무 실시방안, 2025년 저공 경제 응용 시나리오 시범 리스트(제1차) 발표를 통한 저공 경제 응용 시나리오의 가속 착지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칭슈구에 광시 최초의 저공 경제 산업 집적구 조성 및 칭슈 혁신센터 저공 경제 과학창신 핵심구 내 우수 기업 20여 개 집결. 통용 항공, 무인 항공기 연구개발, 제조, 응용 등 영역 관련 기업 포함. 저공 경제 산업 체인 연구개발형 기업들의 과학기술 성과 현지 전환 및 아세안 국가 수출 실현 - 인공지능 분야에서 난닝시의 컴퓨팅 파워 기초시설의 광시 지역 선도적 위치 차지. '인공지능+' 산업 관련 하이테크 기업 100개 이상 보유. 인공지능의 스마트 제조, 스마트 건강, 스마트 교통, 생태 보호 등 다양한 혁신 응용 시나리오 활성화. 중국-아세안 인공지능 혁신 협력 센터 건설 추진 중으로 지역 고능급 과학기술 혁신 허브 구축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리코·큐피, 자율주행 트럭 상품 수송 실험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자키 글리코와 큐피의 7월 17일부터 자율주행 트럭을 이용한 상품 수송 공동 실증 실험 시작 발표. 식품 물류 전문 기업 큐소 유통시스템의 수송 루트 구축,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기업 T2의 실험용 차량 제공 협력. 관동과 관서를 잇는 고속도로에서 상황에 따라 수동 조작하는 레벨2 수준의 자율주행 실험 진행 - 왕복 노선에서 이바라키현에서 효고현까지 드레싱 등 큐피 제품 수송, 효고현에서 사이타마현까지 포키 등 글리코 과자 제품 수송 예정. 두 기업 모두 자율주행 수송 실험 최초 시도. 물류 업계의 운전자 고령화·노동 규제 강화에 따른 '2024년 문제' 직면 상황에서 자율주행 도입이 업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책으로 기대 - 트럭 운전자 부족과 노동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특정 조건 하에서 운전사가 필요 없는 레벨4 자율주행 도입도 시야에 둔 장기적 전략. 글리코와 큐피의 물류 혁신 시도를 통한 산업 전체의 효율성 제고 및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가능성 모색. 물류 산업의 미래 대응 방안으로서 자율주행 기술 활용 확대 전망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 홋카이도 구치한정, 숙박세 3%로 인상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홋카이도 구치한정(俱知安町)의 호텔·여관 숙박자 대상 '숙박세'를 현행 숙박료의 2%에서 3%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정 시작. 홋카이도가 숙박세 도입을 목표로 하는 2026년 4월에 맞춰 세율 인상 추진. 세수는 홋카이도에 교부하는 도세 상당분과 물가 상승 대응, 관광 관련 신규 시책 등에 충당 예정 - 국제적 스노 리조트 니세코 지역을 구성하는 구치한정은 2019년 전국 최초로 '정률제' 방식의 숙박세 도입. 홋카이도는 '단계적 정액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제도 차이로 징수 사무 등 부담 증가 우려로 정률제 채택 자치체가 도에 도세 상당분을 교부할 경우 도세를 과세하지 않는 예외 조치 마련에 합의 - 현행 숙박세 수입을 고려할 때 도세 상당분 징수를 위해 약 0.7% 추가 과세 필요 계산. 홋카이도 신칸센 샛포로 연장에 따른 신역 개업 관련 새로운 관광 시책 전개 등을 고려해 새 세율을 3%로 인상 결정. 숙박세 세율을 3%로 할 경우 2025년도 세수 예상치(5억 6천만 엔)에서 홋카이도 교부분 포함 약 2억 8천만 엔 증수 예상. 3월 정 의회에 조례 개정안 제출 예정
	<p>○ 가나가와 루트, AR 활용 스마트농업 지원 서비스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인력 감소 상황에서 AR(증강현실), AI(인공지능) 활용 스마트 농업 지원하는 가나가와현 기업이 정부 지원 받아 사업 확대. 정부의 2024년 10월 시행 '스마트농업기술활용촉진법'에 기반한 가나가와현 내 2개 기업 포함 3개 사업체의 개발공급실시계획 인정 및 용자·세계 우대 등 개발·보급 지원 추진 - 가나가와현 미나미아시가라시 농업계 스타트업 루트(Root)가 정책금융기관 일본정책금융공고로부터 장기 저금리 용자 획득. AR 활용 생산성 향상 농작업 보조 애플리케이션 'Agri-AR' 제공으로 iPad 등 태블릿이나 스마트클래스를 이용해 현실 풍경에 디지털 정보 중첩으로 농작업 효율화. 용자 자금을 활용해 스마트클래스나 iPad를 연간 40~50대 구입하여 렌탈 사업 확대 예정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12종류 기능 이용시 연간 2만 6400엔, 2개 기능 이용시 9900엔 요금 체계 구성. 스마트글래스 등 장비는 월 4400엔 대여 서비스. 도입 농업자들로부터 “저렴하고 사용하기 쉽다”는 평가 획득. 농가뿐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도원, 자재회사, 지자체 등 다양한 관련 사업자 도입 확대. 2022년 4월부터 농림수산성 채택 사업으로 개발 시작, 2024년 4월 서비스 시작 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진출 <p>○ 시즈오카현, 2024년 휴폐업·해산 사례 전년 대비 20%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국데이터뱅크 시즈오카지점 발표에 따른 2024년 시즈오카현 내 기업 휴폐업·해산 사례 전년 대비 19.8% 증가한 1,941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 기록. 보유 자산 총액이 부채를 상회하는 '자산 초과형' 상태로 휴폐업한 비율 60.4%, 흑자 상태에서 휴폐업한 사례 49.1% 차지. 대표자 평균 연령 71.9세로 전년보다 0.3세 상승, 5년 연속 70세 상회 - 연령대별 휴폐업·해산 분석 결과 최다 연령층은 70대로 41.3% 차지. 80대 22.8%, 60대 22%로 그 뒤를 이어 고령 경영자 비중이 높은 현황 파악.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최다로 281건, 전체의 30.4% 차지. 서비스업 192건, 제조업 144건, 소매업 135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운전자 고령화와 노동 규제 강화에 따른 '2024년 문제'가 영향을 미친 운수·통신업이 전년 대비 85.7% 증가로 두드러진 상승세 - 동 지점의 분석에 따르면 건수는 증가했으나 휴폐업 등으로 손실된 매출액은 전년보다 약 10% 적은 487억 엔으로 “소규모 영세 기업의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엿보인다”고 평가. 시즈오카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중소기업 경영 환경의 어려움 반영.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노동력 부족 등 일본 지방 경제의 전반적 과제가 기업 휴폐업·해산 증가의 배경으로 작용 <p>○ 후지제지협동조합, 폐기물 활용 비료 개발로 처리비용 절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즈오카현 후지시 소재 후지제지협동조합의 산학관 연계를 통한 제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페이퍼 슬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러지' 소각재를 활용한 비료 개발. 2024년 내 '세이초군(セイチョー君)' 상품명으로 발매 예정이며 현 동부 중심으로 판로 개척 추진. 산업 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통한 처리 비용 절감 및 자원 순환 촉진 효과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10월 농림수산성의 허가를 받아 비료 등록 완료 및 특허 출원 중인 상태. 시즈오카 대학, 시즈오카현 농림기술연구소, 첨단농업기술연구거점 운영 일반재단법인 AOI기구 등과의 공동 연구로 시금치 등 재배 시험 진행. 2025년부터 시즈오카 대학에서 비료의 용도, 사용량, 적합 작물 관련 위탁 연구도 시작 예정 - 페이퍼 슬러지의 인, 질소, 칼륨 등 영양소 함유 특성 활용. 연간 처리 용량 일일 1,200톤, 연간 처리 비용 수억 엔 소요되던 상황에서 비료 활용 시 처리 비용을 5분의 1인 수천만 엔 단위로 절감 가능. 가격은 일반 유기비료의 3분의 1 수준으로 화학비료보다도 저렴. 첫해 1,000톤, 5년 후 월 500톤 판매 목표. 중소 제지회사 부담 경감 및 지역 사회 환원 효과도 기대
	<p>○ 규슈경제연합회, 2025년 반도체 담당 신설 및 대만 연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슈경제연합회 쿠라토미 스미오 회장의 “2025년부터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을 새롭게 배치할 것”이라는 발표. 후쿠오카에 기업 지원 거점 설치를 표명한 대만과의 연계 강화 추진. 반도체 산업 집적과 산학 연계 도모하는 '사이언스 파크' 각지 설치 구상 실현을 위한 지자체 대상 활동 전개 예정 - 전문 담당자 수 명 배치 방향 설정. 쿠라토미 회장은 “현재 규슈경제연합회가 추진하는 몇몇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반도체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 규슈지역전략회의가 2월 9~11일 대만 북부 신죽 사이언스 파크 관리국, 공업기술연구원(ITRI), 경제부 방문 통한 교류 심화. 경제부 광지휘 부장의 후쿠오카 '대만 무역투자센터' 설치 표명으로 TSMC 구마모토 진출에 따른 규슈 진출 대만 기업 지원 및 일본과의 산업 연계 강화 계획 - 신죽 사이언스 파크는 1980년 첨단 산업 육성 목표 대만의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대형 프로젝트로 설립. TSMC 본사와 ITRI, 이공계 톱 대학 입지로 산학 연계와 산업 집적 동시 달성하여 대만을 반도체 선진지로 발전시킨 성공 모델. 규슈는 전국적으로도 산업 집적·지역 간 연계가 진전되어 있어 다른 지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성과 도출 기대. “지금 하지 않으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쿠라토미 회장의 위기의식 표명</p> <p>○ 사이타마현 물산관광협회, 대만 여행사와 관광객 유치 협정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타마현 물산관광협회의 대만 여행사 5개사와 인바운드 (방일 외국인) 유치에 관한 연계 협정 체결. 매력적인 투어 개발과 대만에서의 프로모션 등에서 협력하여 대만 관광객 유치 강화 및 관광 소비액 증가 도모. 현 내 사업자 등이 아웃도어 체험이나 견학 투어 등 여행 상품 고안, 협회가 5개사 한정으로 제공, 각 여행사가 투어 구성하여 대만에서 판매하는 구조 구축 - 협정을 체결한 5개사는 지광여행사, 동남여행사, 오복여행사, 희흥여행사, 여유가여행사. 여행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여행 상품의 매력 향상에도 활용 예정. 사이타마현 오노 모토히로 지사는 “사이타마현은 연간 79만 명의 인바운드 손님이 방문 하며, 그중 19만 명이 대만에서 옵니다. 대만의 많은 분들이 사이타마를 방문하여 즐기셨으면 한다“고 말해 대만 방문객 유치에 대한 기대 표명 - 협정을 통해 대만에서의 사이타마현 브랜드력 향상 등에서도 협력 강화. 체결식에 참석한 대만 여행사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관광 교류 활성화 기대.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외에도 현지 특산품 홍보, 문화·예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확대 전망.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일본 방문 대만 관광객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지역 마케팅 전략의 일환 <p>○ 우쓰노미야시, 스포츠 인구 증가 및 산업 진흥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쓰노미야시의 시민 건강 증진과 관련 산업 진흥을 목표로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하는 '우쓰노미야시 스포츠 추진 계획' 제2차 계획 책정 발표. 2015년 책정한 제1차 계획 달성 상황을 토대로 연령층별 활동 촉진책과 스포츠 대회 개최·유치 등에 중점적 추진. 특히 20세 이상 시민의 주 1회 이상 스포츠 활동 실시율이 목표 75%에 대비 약 50%에 머무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기 계획에서는 어린이부터 성인, 고령자, 장애인까지 평생에 걸쳐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 확보 필요성 명시. 시설 정비와 스포츠 교실 개최 외에도 관련 단체 지원과 지도자 육성에도 주력 예정. 사토 에이이치 시장은 “스포츠를 '보는' 것에서 실제로 '하는' 것으로 연결하고 싶다. 흥미를 갖게 하는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 참여 중요성 역설 - 우쓰노미야시는 축구, 농구, 자전거 로드레이스의 프로 스포츠 팀 활동과 'FIBA 3x3 월드 투어', '재팬컵 사이클 로드레이스' 등 국제 대회도 매년 개최하는 스포츠 도시. 럭비 '미에 혼다 히트'도 2026~27시즌을 목표로 본거지를 미에현 스즈카시에서 우쓰노미야시로 이전 예정. 이러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대회 유치·개최 확대와 스포츠 투어리즘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p>○ 가가와현, 현립대학 설치 검토로 청년 유출 방지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가와현 이케다 토요히토 지사의 새로운 현립대학 설치 또는 기존 대학 확충 검토 방침 발표. 가가와현의 현내 대학 진학률 저조로 인한 청년층 현외 유출 문제 해결 목표. 진학 기회 수용체 확대를 통한 청년층 정착 촉진 방안 모색. 현의회 대표 질문에서 유식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를 통한 대학 신설 또는 현립보건의료대학 확충 여부 검토 계획 발표 - '100개 지표로 본 가가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현내 대학 진학률 약 17%로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수준. 진학 기회 부족이 청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내에는 국립 가가와대학 등이 있으나 진학 희망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 청년 인구 유출이 지역 경제 활력 감소와 고령화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심화 등 사회적 과제 초래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를 통한 종합적 검토 계획으로 현내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 설립·확충 방안 모색. 지역 산업계·고교·행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최적 방안 도출 예정. 대학 설치 검토 발표는 청년층 현외 유출 방지 및 지역 인재 양성·정착을 위한 가가와현의 적극적 대응 의지 표명. 지역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서의 고등교육 기관 확충 전략 제시 <p>○ 오사카부 히가시오사카시, 2027년부터 수학여행 비용 무상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사카부 히가시오사카시의 어린이 육아 지원 확충 공정표 발표와 단계적 무상화 정책 시행 계획. 보육료 무상화는 2026년도에 2세아부터 실시하고 01세아로 순차적 확대 예정. 35세아는 이미 국가가 무상화 실시 중. 초중학교 수학여행비는 2027년도 원칙적 무상화 목표. 중학생 학원비 일부 지원도 소득 제한 설정하여 2027년도부터 시작 계획 - 급식비는 이미 중학생과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무상화했으며, 2025년도부터 초등학교 1~4학년생까지 확대 예정. 이 정책들을 모두 실시하면 연간 23억 엔이 소요될 전망으로 의회와의 협상 필요성 제기. 노다 요시카즈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아이들 우선주의’를 명확한 이념으로 가지고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리고, ‘거주하려면 히가시오사카시’라는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발언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영유아 보육료 단계적 무상화, 초중학생 급식비 확대, 수학여행비 무상화, 학원비 일부 지원 등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 연 23억 엔 규모의 재정 투입을 통한 육아·교육 환경 개선으로 인구 유입 및 정착 유도. 육아 세대에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 구축을 통한 지역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서 인구 감소·저출산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응 사례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 도요타, 2026년 말 신형 수소 트럭 출시 및 연 5000대 공급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요타자동차의 2026년 말 신형 수소연료전지(FC) 트럭 출시 계획 발표. 도요타와 이스즈자동차 등이 출자한 커머셜 재팬 파트너십 테크놀로지스(CJPT)가 기획한 소형 트럭에 국내 생산 신형 FC 시스템 탑재 예정. 일본 시장 연간 700~5000대 공급 목표 제시. 트럭에 탑재할 FC 시스템은 2026년부터 본사 공장(아이치현 도요타시) 등에서 제조 시작 예정 - 신형 FC 시스템의 차량 크기에 따라 중핵 부품 '셀' 매수 조절 가능한 특징 보유. 현행품 대비 내구성 2배, 연비 성능 20% 향상. 2028년에는 대형 FC 트럭 출시도 예정. FC 시스템은 외판 계획으로 승용차, 상용차, 정치식 발전기, 선박 등 다양한 용도로 공급 예정. 일본, 유럽, 북미, 중국 시장 등에 전개하여 2030년 연간 10만 대 공급 목표 - 도요타 수소 사업 전담 조직 '수소 팩토리' 야마가타 미쓰마사 사장은 “트럭은 승용차에 비해 수소 소비량이 많다”며 수소 수요 창출을 통한 수소 스테이션 안정 가동 연계 추진 의지 표명. 2014년 세계 최초 양산 FCV '미라이' 출시 등 기술 개발 선도에도 불구하고 수소 스테이션 부족, 수소 가격 높음 등으로 2024년 FCV 세계 판매 전년 대비 56% 감소한 1,778대로 전기자동차(EV)의 약 8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현실 극복 도전
	<p>○ 샤프 로보혼, 고령 운전자 운전 지원 기능 개발로 4월 전국 실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프와 스미토모상사 등의 소형 로봇을 활용한 고령 운전자 운전 지원 시스템 개발. 샤프의 소형 로봇 '로보혼'을 활용한 실증 실험을 1월 오사카에서 실시하고 4월부터 실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2026년도 중 서비스 상용화 목표. 후기 고령자 면허 보유자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 운전 지원 체계 구축 추진 - 운전 지원 시스템의 핵심은 로보혼과 스마트폰을 조수석에 설치하고 스마트폰의 GPS나 가속도 센서를 통해 실시간 운전 상황 파악. 운전 상황에 기초한 조언을 로보혼이 발화하는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방식으로 운전자 지원. 실험에 참가한 74세 운전자는 “로보 혼이 칭찬해 주어서 운전하면서 기분이 좋았다”고 소감을 전 하며 긍정적 평가. 로보혼의 약 20cm 소형 사이즈와 스마트폰과 연계하기 쉬운 범용성 높은 특성이 “동승자“ 역할에 적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가족이나 친구보다 로봇에게 운전 중 조언을 더 받아들이기 쉽다는 결과 도출. 4월부터 로보혼의 발화 내용 등을 개선한 실험을 2개월간 전국 공도에서 실시 하고, 로보혼과 스마트폰을 연동한 운전 지원 시스템으로 20 25년도 중 시험 서비스 시작, 2026년도 중 상용화 목표. 자율 주행 실용화가 예상되나 스스로 운전하는 즐거움을 빼앗지 않고 안전 운전을 지원하는 서비스 수요 확대 전망
	<p>○ 베트남 GDP 성장률 목표치 8% 이상으로 상향하고 대형 인프라 사업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국회의 2월 19일 202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기존 6.5~7.0%에서 8% 이상으로 상향 조정 승인. 동시에 베트남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중국 연결 철도 건설을 포함한 대형 인프라 사업 승인. 베트남 북부 주요 항구와 중국을 연결하는 신규 철도 사업은 83억 달러(약 11조 9,611억 원) 규모로 중국 정부 차관 일부 투입 예정 - 추가 승인된 주요 정책으로는 2031년 말까지 첫 원전 건설을 목표로 하는 원자력 발전소 개발 정책과 일론 머스크의 스타 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정, 반도체 산업 진출 국내 기업 지원책 등이 포함. 2월 18일에는 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기관을 최대 20%까지 축소하는 행정 개혁안도 승인한 상태로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경제성장 가속화 목표 - 베트남 정부의 올해 4.5~5.0% 수준 예상 물가 관리와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중요성 강조.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함께 물가 안정과 거시경제 건전성 확보 병행 추진. 성장 목표 대폭 상향과 대형 인프라 투자를 통한 베트남 경제의 새로운 도약 추구. 중국과의 연결성 강화, 원자력 에너지 도입, 첨단 기술 산업 육성 등 포괄적 경제 발전 전략 제시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 베트남, 경제성장 가속화 위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 단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국회의 2월 18일 수천 개 일자리 감축과 관료제도 간소화 목표로 한 수십 년 만의 최대 규모 정부조직 개편안 승인. 정부 부처와 기관 규모를 20% 축소해 약 10만 명의 공무원이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 5개 부처 폐지와 재무부·기획투자부 등 일부 부처 통합, 국영 미디어 매체 대폭 축소 포함. 다수의 TV 채널과 신문, 잡지 폐간도 예정되어 행정 효율화 및 정부 운영 비용 절감 추구 - 팜 밉 쩡 베트남 총리가 제시한 2024년 8% 경제성장률 달성과 향후 두 자릿수 성장 기반 마련 목표의 일환으로 추진. 공공 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 예상되는 정부 퇴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보상금 지급 계획 수립. 행정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구조조정 방안으로 평가 - 베트남 정부의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 개혁과 경제 구조 전환 의지 표명. 관료제 축소, 부처 통폐합, 미디어 구조조정 등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대규모 개혁 추진. 정부 조직 슬림화를 통한 의사결정 속도 향상 및 경제 활성화 여건 조성 목표.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외국인투자 감소에 대응한 베트남의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서의 정부조직 개편 의미
	<p>○ 말레이시아, 3월 원유팜유 수출관세 10% 유지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의 3월 원유팜유 수출관세를 현행 10%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 발표. 3월 기준가격은 톤당 약 4,390 링깃(약 143만 원)으로 2월의 4,817 링깃(약 157만 원) 대비 하락했음에도 세율 동일 유지. 말레이시아의 원유팜유 수출관세는 톤당 2,250링깃(약 73만 원)~2,400링깃(약 78만 원) 구간에 대해 3%로 시작하여 가격 상승에 따라 세율 상승하는 구조 - 톤당 4,050링깃(약 13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 10%가 적용되는 세율 체계 유지. 원유팜유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최고세율 적용 구간에 속해 세율 유지 결정. 세계 2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팜유 수출국인 말레이시아의 수출관세율 유지 결정이 글로벌 팜유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특히 말레이시아 팜유의 국제 시장 경쟁력이 현행 세율 유지로 영향받을 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팜유 산업의 국제 경쟁력 및 세수 확보 사이의 균형 모색 노력 반영. 원유팜유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고 세율 유지를 통한 정부 재정 수입 확보 우선시 경향 보여줌. 세계 팜유 시장에서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 수출국으로서 말레이시아의 정책 결정이 국제 팜유 시장 가격 형성에 중요 변수로 작용. 향후 국제 팜유 가격 변동에 따른 말레이시아의 세율 조정 여부 주목 필요
	<p>○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 필리핀에 전력 공급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의 사라왁 주에 2026년부터 사바 주를 경유해 남부 필리핀에 잉여 전력 공급 요청. 미리의 500 메가와트(MW) 규모 복합화력발전소와 빈톨루의 총 1,500MW 용량 세 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공급할 계획. 아방 조하리 툰 오펩 사라왁 주총리는 잉여 전력을 사바주 경유 남부 필리핀 공급으로 아세안 에너지 그리드 기여 강조 - 사라왁 주의 아세안 주요 에너지 생산지 자리매김을 위한 에너지 생산용 합성가스 생산 확대 추진. 지역 경제 발전 및 에너지 수출을 통한 수익 창출 기회 모색. 아방 조하리 주총리의 아핀 은행에 사라왁 지역본부 설립 신속 추진 촉구와 함께 산업계·중소기업 대상 금융 지원 확대 기대 표명. 에너지 수출과 금융 서비스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 병행 추진 - 말레이시아-필리핀 간 에너지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 전력망 연계 및 에너지 안보 증진 효과 기대. 사라왁 주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주변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 및 아세안 에너지 그리드 구축에 기여. 말레이시아 동부 지역의 에너지 허브로서 사라왁 주의 역할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 동력 확보. 전력 수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창출과 국제 협력 강화라는 이중 효과 달성 목표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 현지 통화 거래 지침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 중앙은행의 현지 통화 표시 국경 간 거래 촉진을 위한 현지 통화 거래 체계 운영 지침(LCTF OG: Local Currency Transaction Framework Operational Guidelines) 채택. 기존 양자 간 지침을 통합하여 참여 금융기관과 이용자를 위한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강화 목적. 상품·서비스 거래와 직접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를 적격 거래 대상에 포함하는 포괄적 체계 구축 - 새로운 체계를 통한 투자자들의 환율 위험 완화 및 현지 통화 거래 기회 확대 효과 기대. 각국 중앙은행의 자격을 갖춘 상업은행들의 LCTF 적극 참여 권고. 참여 은행들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 국경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 통화 거래 촉진 역할 강조. 동남아시아 국가 간 현지 통화 사용 확대를 통한 미 달러 의존도 감소 및 역내 통화 협력 강화 목표 - 역내 국가 간 현지 통화 직접 거래 활성화를 통한 외환 시장 안정성 제고 및 거래 비용 절감 효과 예상. 달러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노출 감소 및 역내 금융 거래의 효율성 향상 기대. 아세안 경제공동체 내 금융 통합 강화 및 역내 통화 협력 발전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 향후 필리핀, 베트남 등 여타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 확대 가능성과 역내 통화 협력 심화 전망
	<p>○ 말레이시아 정부, 농업 분야 기술직업교육훈련 강화 의지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의 농업 분야 기술 직업교육훈련(TVET) 강화 의지 표명. 국가 TVET 위원회(MTVETN) 의장인 자히드 부총리는 TVET 졸업생 전국 평균 취업률이 94.5%, 마라(Mara) 기관 졸업생 취업률 98.7%에 이르는 성과 강조. 반면 농업 분야 취업률은 80%로 상대적으로 낮은 현황 인식 - “정부는 결코 농업 분야 TVET를 소홀히 한 적이 없으며, 농업 기반 및 비농업 기반 TVET 분야 모두 발전시키기 위한 초점을 강화할 것”이라는 부총리의 의지 표명. MTVETN과 함께 농업 기술자와 엔지니어 같은 인재들이 필요한 지원과 우선권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받을 수 있도록 평가 계획. TVET 교육 프로그램이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된 포용적 시스템임을 강조하며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 전환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이니셔티브는 성공적이었으나 학생들의 관심은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TVET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 제시. 2023년 1만 명 이상의 SPM (말레이시아 중등교육 수료 시험) 응시자 등록, 2024년에는 8천 명 이상이 등록했으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TVET를 통한 두 번째 기회 제공 강조. “TVET가 대안으로 여겨지지 않고 학생들의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농업 인력 양성의 중요성 역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미국 보복관세 위협에 직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싱크탱크 노무라 아시아의 필리핀이 높은 비관세장벽(NTB)으로 인한 미국의 높은 보복관세 위협 직면 경고. 보복관세가 미국에 대한 상대국의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환율 변동, 시장 접근 제한 등 차별적 요소를 기반으로 부과됨을 지적. 필리핀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과 함께 수입 정책, 위생 조치, 기술적 무역 장벽 등 높은 비관세장벽 보유 국가로 지목 - 필리핀의 구체적 비관세장벽으로 중고 자동차 수입 금지, 동물 사료에 대한 원료 사용 보고서 촉구, 엄격한 수입 허가 및 저온 유통 규정 등 사례 제시. 필리핀이 아시아 국가 중 보복관세 위협이 네 번째로 높은 국가로 평가. 노무라 연구에 따르면 인도·태국·중국 등 신흥 아시아 국가들이 선진 아시아 국가들보다 보복관세 위협이 더 큰 것으로 분석 결과 도출 - 미국의 보복관세 정책이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 경제에 잠재적 위협 요소로 부상.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들이 미국의 무역 보복 조치 표적이 될 가능성 증가. 필리핀의 높은 비관세장벽이 미국과의 무역 관계 및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 미칠 우려 제기. 비관세장벽 완화 및 무역 제도 개혁 필요성 대두와 함께 미국과의 무역 균형 도모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모색 필요성 강조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 필리핀, 2024년 외국인 투자 전년 대비 39% 감소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의 2024년 외국인 투자액 5,436억 페소(약 13조 5,574억 원)로 전년 8,890억 페소(약 22조 1,717억 원) 대비 약 39% 감소 현황 발표. 독일, 네덜란드,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등 주요국 투자 대폭 감소. 특히 독일 투자액이 3,940억 페소에서 3억 5,280만 페소로 급감하는 등 주요 투자국들의 투자 위축 두드러짐 - 산업별로 전기·가스·증기·공조 공급 부문 투자가 7,323억 7,000만 페소에서 3,415억 페소로 53.4% 감소. 반면 운송·저장 부문은 24억 1,000만 페소에서 149억 9,000만 페소로, 숙박·외식 부문은 2억 4,780만 페소에서 20억 1,000만 페소로 증가하는 등 일부 서비스 부문 투자 확대 관찰. 산업 구조 변화와 투자 패턴 전환 신호로 해석 가능 - 2024년 4/4분기 승인된 외국인 투자액은 577억 페소로 전년 동기 3,944억 6,000만 페소 대비 약 85.4% 감소한 충격적 하락세. 같은 기간 필리핀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액은 3,160억 페소로 전체 승인 투자액의 84.6% 차지하며 내국인 투자 의존도 급증. 외국인 투자 감소 원인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투자 환경 우려,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 등 복합적 요인 작용 추정 <p>○ 캄보디아, 세계은행과 은행 부문 기술 지원 협력 논의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은행의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에 대한 기술 지원 제공 방안 검토 진행. 차아 세레이 캄보디아 중앙은행 총재와 랄리타 M. 무르티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 등이 참여한 양측 대표단 간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금융 부문 발전 지원 방향 설정. 차아 세레이 총재는 바콩 결제 시스템 등 디지털 금융 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주요 정책을 통해 캄보디아 은행 부문의 안정성과 대중 신뢰 유지 현황 강조 - 바콩 시스템이 결제 플랫폼 역할 수행과 함께 중소기업 신용평가를 위한 현금흐름 평가 도구로도 활용되는 혁신적 기능 설명.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디지털 금융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성과 공유. 차아 세레이 총재는 캄보디아 은행·금융 부문 발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에 대한 세계은행의 기여 인정과 함께 세계은행 및 여타 개발 파트너와의 지속적 협력에 대한 캄보디아 중앙은행의 의지 재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의 경제적 필요와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협력 중요성 강조 캄보디아 중앙은행과 정부 부처, 기관, 개발 파트너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금융 부문 발전 추진 방향 제시. 세계은행의 기술 지원을 통한 캄보디아 금융 시스템 안정성 및 포용성 강화 기대. 디지털 금융, 금융 포용,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 가능성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이스X, 캄보디아를 2025년 주요 투자 대상국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이스X-스타링크의 마케팅 접근성 책임자 레베카 헌터와 동료들이 캄보디아 순 찬톨 부총리 겸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CDC) 제1부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캄보디아를 2025년 우선 투자 대상국으로 선정했다는 의사 표명. 이번 캄보디아 방문에서 스타링크-스페이스X는 정부 수반 및 관련 부처 고위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통한 캄보디아와의 관계 강화 목표 설정 - 스타링크의 현재 상황 파악과 기술 현대화를 위한 투자 환경 학습, 그리고 실현 가능성과 투자 기회 검토를 위한 기초 마련이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으로 제시. 순 찬톨 부총리는 헌터 책임자 일행을 환영하며 캄보디아에 관심을 갖고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에 대한 환영 의사를 표명. 부총리는 또한 정부의 기술 분야 발전 정책이 오각형 전략-1단계의 다섯 가지 핵심 우선순위 중 하나이며 오늘날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 - 2024년 9월 24일 순 찬톨 부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이 캘리포니아 호손에 위치한 스페이스X 본사를 방문한 바 있으며, 당시 최신 기술 발전, 위성 운영 시스템, 회사의 다양한 신기술 특히 스타링크 위성 군집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방안 등에 대해 학습. 이번 스타링크의 캄보디아 방문은 그 후속 조치로서 양측의 협력 관계 발전과 캄보디아의 디지털 인프라 및 인터넷 연결성 향상 전망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 싱가포르 총리, 2025년 국가 예산안 발표로 경제 성장 촉진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렌스 워그 싱가포르 총리의 2025 회계연도 예산안 의회 발표에서 독립 60주년 맞는 싱가포르의 '포워드 싱가포르' 의제 중점 강조. 물가 압박 해소, 성장 촉진, 근로자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 포용적 사회 구현을 주요 목표로 설정. 운영 수입 68억 싱가포르달러(약 7조 3,054억 원), 총수입 1,227억 8,000만 싱가포르달러(약 131조 9,183억 원), 총지출 1,237억 9,000만 싱가포르달러(약 132조 9,907억 원) 규모의 재정 계획 제시 - 가구당 800 싱가포르달러(약 85만 9,000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대상 가구에 최대 760 싱가포르달러(약 81만 6,000원)의 공공 요금 환급, 200 싱가포르달러(약 21만 4,000원) 한도 내 개인 소득세 60% 환급, 기업 유동성 지원 위한 법인세 50% 환급 등 다양한 재정 지원책 발표.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고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포괄적 지원 정책 패키지 제공 - 원자력 발전 도입 가능성 검토와 청정에너지 확보를 위한 퓨처 에너지 펀드(Future Energy Fund)에 50억 싱가포르달러(약 5조 3,716억 원) 추가 투자 계획 발표. 싱가포르 자본시장과 경제 활동 투자 촉진을 위한 싱가포르 소재 기업과 펀드매니저 대상 세제 혜택 도입 방침.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전략 제시. 포용적 성장과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 국가 발전 청사진 구현

* 출처: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日本經濟新聞